

에너지진단사 이지응 대리

“일을 통해 성취하고 행복을 느껴라!”

■ 이선희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에너지업계에서 이름 석자를 빛내 보이겠다고 말하는 한국하니웰의 이지응 대리는 에너지진단사다. ESCO사업의 시작인 상담에서부터 진단,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제안, 계약, 설치,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단사 자격증 취득은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지응 대리를 만나 보았다.

이지응 대리(30세)는 에너지진단사다. 에너지진단사는 산업체와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에너지 이용실태에서부터 에너지손실요인까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방안을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아직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증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집중 육성 중에 있다. ESCO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리는 지난해 9월 21일 시행된 제1회 열부문 에너지진단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자 37명중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진단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합격을 했다.

“아마 시험 초창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인류에게 있어 중요하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의 동기에 대해 겸손하게 답한 이 대리는 현재 한국하니웰 에너지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ESCO사업의 시작인 상담에서부터 진단,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제안, 계약, 설치,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단사 자격증 취득은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 대리가 ESCO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ESCO사에 처음 입사하면서부터이지만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TAB인증기술자 등 ESCO와 관련된 여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 기술들을 접목해서 고

“

에너지업계에서 이름 석자를 빛내 보이겠다고 말하는 한국하니웰의 이지웅 대리는 에너지진단사다. ESCO사업의 시작인 상담에서부터 진단,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제안, 계약, 설치,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진단사 자격증 취득은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한다. 이지웅 대리를 만나 보았다.

”

객사에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희열을 느낀다는 이 대리. ESCO사업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히트펌프기술, 열병합, 수축열시스템, 폐열회수, 축열기, 인버터 등 모든 것이 그의 관심영역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력자원만큼은 최고인 브레인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ESCO사업이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 남들이 안 해본 것을 실현해 이름 석자를 빛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희망을 당당하게 피력한 이 대리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의 소유자다. ‘웃으면서 살자’를 신조로 삼고있을 만큼 사교성도 뛰어난 편이다. 때로 안챙겨도 되는 문제까지 챙겨 ‘오바맨’ 역할도 하지만 상관없단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성취욕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빌 게이츠를 존경하는지도 모른다고.

작년 7월 하니웰에 입사하였지만 직장 동료들과는 ‘화합의 정신’을 살려 ESCO사업에 전력투구중이다. ESCO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출장이 조금 잦은 편이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과 배운다는 자세로 일한다면 아무 문제없단다.

개개인의 공부와 기술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젊은 인재들의 유입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공계 젊은이들이 ‘젊은 피’로서 에너지절약사업에 수혈되는 것은 에너지사업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리의 바람은 후배들이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더욱 많이 진출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실제 이 대리가 ESCO업무를 수행하면서 바라본 ESCO사업의 애로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ESCO자금의 이자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아직도 금융기관에서 ESCO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 하나

이다. 현장실무자인 그의 눈에 비친 ESCO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그야말로 사람과 국가와 지구를 위한 훌륭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다.

“가장 고민되는 업무요? 투자대비 경제성을 분석한 여러 가지 안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를 따질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이 대리는 말한다. 휴일이면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재충전을 하는 만큼 일할 때는 확실히 일을 우선시한다. 또 전문기술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다. 이 대리와의 같은 젊은 ESCO인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때 ESCO사업은 곧 희망일 것이다.☺

